

양성평등 전북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양성평등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 30일 오후 3시 재단 별관에서 출범 후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양성평등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양성평등 전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과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전담조직을 설치해 도 정책 전반에서 성인지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한 실행 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원정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조성을 위한 답은 양성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여성친화적 사업과 고용구조의 전환, 돌봄중심 지역경제 구조 구축, 전북형

일·생활균형 기업 모델 만들기, 지역공동체 내 사회적 돌봄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새로운 유대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회에는 박용근 도의원,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성숙 전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그리고 일반 시민인 신재복 씨가 참여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용근 도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새로운 전부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 과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 기반 마련에 있다"며 "도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 및 사업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국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그간의 성과들을 공유하며,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김성숙 전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과 과제를 말하면서, 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남성양육자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신재복 씨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가정 양성평등을 주제로 육아휴직을 둘러싼 본인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직장 내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양성평등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골동품 '꼼수 증여' 차단... 평가 강화

기재부,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서화(書畵)나 골동품에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평가 방법이 강화된다. 그동안 전문가 2명이 평가를 해 왔던 앞으로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한다.

그림이나 글씨 등 미술품의 상속·증여가 조세회피 수단인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 개정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가액으로 서화나 골동품의 가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평가 주체를 2개 이상의 전문가

로 개선한다.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데도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격의 150%를 초과한다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전문가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격 중 높은 금액을 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년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스트레스 받고 있나요?... '마음 회복 수업'

"마음 건강은 뇌에 달려있다." "마음 회복 수업" (시공사)은 마음챙김과 신경과학, 긍정 심리학을 기반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멈추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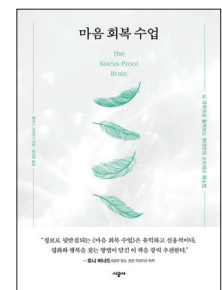
저자는 '트위터에서 팔로우해야 할 가장 저명한 심리학자 3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미국 임상 심리학자인 멜라니 그린버그로 뇌 과학에 기반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 고 근본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한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여러 방식으로 뇌의 기능을 방해한다. 스트레스는 뇌세포가 포도당(뇌의 중요한 에너지원)을 전달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손상한다. 글루코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뇌세포의 회복탄력성이 떨어지고 손상에 더 취약해진다. 코르티솔의 과도한 수치는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기존의 세포를 복구하는 해마의 능력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 기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성 스트레스와 과도한 코르티솔은 편도체와 해마의 연결을 강화해 계속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한다. 동시

에 그 부분과 전전두피질 사이의 연결이 약해져서 뇌의 이성적인 영역을 통한 스트레스 반응 조절이 줄어들 수 있다."(34~35쪽)

저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며 각자 겪고 있는 스트레스 유형도 매우 다양하므로 그에 걸맞은 진단과 해소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책에 여러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스트레스 원인과 유형을 살펴 그에 적합한 해소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뇌 과학 기반의 '마음챙김' 기술을 자세히 소개한다. /뉴시스



문화도시 익산,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다'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첫 번째 팝업스토어 오픈... 친환경 재료 활용 전시·체험·판매 등 진행

익산시는 원광대 대학로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31일부터 팝업매장 '리:필(Re:必)'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매장은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갖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적 기업 (유)사각사각과 지구인게스트 브랜드의 협업으로 준비됐다.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되는 팝업매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13~21시, 주말은 10~18시다.

자투리목을 활용한 친환경 목공 제품 전시와 나무 칫솔, 고체치약, 주방 비누, 샴푸 바, 다회용 빨대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유·무료 체험도 제공된다. 비건가족을 활용한 카드지갑 만들기, 레이저 각인이 가능한 나만의 원목 젓가락 만들기, 친환경 금동이 수세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운영된다. 체험은 '사각사각' 네이버 스토어 (smartstore.naver.com/sagac6538)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팝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익산시는 원광대 대학로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31일부터 팝업매장 '리:필(Re:必)'을 연다.

스타일의 중요성을 알리고 익산시를 더욱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culturecityiksan.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 관련 문의는 (유)사각사각(063-841-6538)으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난해 방한여행객 1103만명... 해외 떠난 한국인은 2272만명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03만 명,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은 2272만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가 30일 공개한 2023년 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방한객은 1103만명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63% 회복한 수치다.

지난해 방한 최다국은 일본(232만명)이었다. 뒤를 이어 중국(202만명), 미국(109만명), 대만(96만명), 베트남(42만명) 순이었다.

한국을 찾는 방한관광객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12월 방한객은 103만6625명으로 전년 동월(53만9273명) 대비 92.2% 늘었다.

12월에 가장 많은 방한객을 기록한 시장은 중국(25만4000명)이었다. 뒤를 이어 일본(19만6000명), 대만(8만1000명), 미국(7만8000명), 싱가포르(5만6000명) 순이었다. 싱가포르, 미국 시장은 2019년 12월 대비 각각 33.6%, 1.2% 증가하며 회복을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구미주 시장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90%, 아중동 지역은 88%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은 2272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동기 대비 79% 수준까지 늘었다. 특히 12월 국민의 해외관광객은 241만5767명으로, 2019년 동월의 103% 수준 회복세를 나타냈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